

점령기 ‘여성해방’과 일본 지식인의 반응

- 『婦人公論』의 기사를 중심으로 -

이 은 경*

exodian@snu.ac.kr

〈 目 次 〉

- | | |
|-----------------------|-----------------------|
| 1. ‘여성해방’의 여정과 역설 | 3)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실망과 우려 |
| 2. 점령기 ‘여성해방’의 실현과 우려 | 3.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미국 |
| 1) GHQ의 여성해방정책 | 4. ‘여성해방’을 둘러싼 인식의 교차 |
| 2) 여성의 참정권 획득과 선거의 결과 | |

Key Words : 부인공론(fujinkoron), 여성해방(Women's liberation), 여성참정권(Women suffrage), 가사노동(housework), 미국(America)

1. ‘여성해방’의 여정과 역설

전전(戰前)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만주침공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침략전쟁으로 돌입하는 1931년 이전까지, 일본 여성운동의 주된 흐름은 ‘여권’의 신장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표는 여성의 참정권 획득이었다. 1920년 <신부인 협회>의 설립을 시작으로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가 조직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의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이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하지만 당시 남성 중심의 기득권층은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좀처럼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전공은 일본 근현대 역사, 여성과 생활문화 등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HK)사업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수행하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과제번호 KRF-2008-361-B00006)

림 긍정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다. 여성들의 주장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가족국가적 국체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¹⁾ 따라서 그다지 급진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남성만으로 이루어진 의회는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만주사변 발발 후 약 15년에 이르는 전시하에서의 여성운동은 사실상 공백에 가까운 것이었다. 개인의 이익과 생활을 희생해가며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하던 이들은 국가의 비상시국에 즈음하여 헌신의 대상을 바꾸어야 했다. 바로 그러한 노력을 통해 여성들은 일본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혹은 참정권운동의 진정성을 인정받고자 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이 일본 정부의 전쟁수행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함으로써, 마치 제1차 세계대전 후 서구의 여성들이 그러했듯 일본 여성들도 참정권을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성] 집안을 청소하려면 정권 열쇠 정도가 아니라 현관 열쇠(참정권)가 필요하다²⁾”는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아시아 태평양전쟁이라는] ‘대청소’ 기간에 자신들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관 열쇠’는 예기치 못하게 주어졌다. 일본의 패전이라는 슬픔과 점령정치의 굴욕을 제대로 실감하기도 전에, 혹은 전시기 동안의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고 반성할 겨를도 없이, GHQ에 의해 ‘남녀평등’이라는 예기치 못한 큰 선물이 주어진 것이다. 수십 년 전부터 염원했던, 그러나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선물이었다.

하지만 패전의 충격과 이후의 생활에 대한 걱정과 공포가 지배하던 시기, 일체의 논의나 적응기를 생략한 돌연한 ‘남녀평등’의 실현에 대해 당시 일본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 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거나 제대로 이해하려 한 적이 없었던, 당연히 이를 허락한 적도 없는 남성들의 당황스러움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여성들이라고 해서 혹은 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 왔던 여성운동가라고 해서, 전적으로 이를 환영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당장 남녀평등에 의거한 생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근대

1) 鈴木裕子(1995) 『女と〈戦後50年〉女性史を拓く』 未来社 p.79.

2) 市川房枝(1974) 『市川房枝自伝』 新宿書房 p.259.

이후 줄곧 일본 여성에 관련된 쟁점들을 시의성 있게 다루었던 『婦人公論』³⁾의 기사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婦人公論』은 항상 당대 여성의 문제에 시의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여성잡지였기 때문이다. 단순한 정보와 기사의 나열이 아니라 특집의 구성을 통해 진행 중인 주요문제를 놓치지 않고 쟁점화하는 역량을 가졌던 만큼, 점령기 여성문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기에 적합하다. 둘째, 1916년 『中央公論』의 자매지로서 창간된 이래 『婦人公論』은 줄곧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여권확장’을 주장해 왔다.⁴⁾ 여성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비교적 명쾌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점령기의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GHQ의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여성정책에 대해, 당시의 일본인들 심지어 종래부터 여성해방을 주장해 온 진보적인 지식인과 여성운동가들조차도, 우려와 더불어 부정적인 인식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을 본고의 가설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평소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가져왔던 이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전부터 여성정책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이들이라면, 점령기 여성정책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번째의 이유는 『婦人公論』이 점령기 GHQ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제시한 본고의 가설과 무관하지 않다. 『婦人公論』은 전시기 일본 당국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던 끝에 1944년 1월 강제 폐간되었던 역사가 있으며, 전후에는 GHQ와의 교감 속에 신속하게 재생호(再生号)를 낼 수 있었다.⁵⁾ 이러한 『婦人公論』이었던 만큼 GHQ의 여성정책에 대해 다른

3) 『婦人公論』에 관한 국내 연구로서는 전후 여성해방의 실현을 남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관한 연구(이은경(2011) 『전후 일본 남성들의 여성해방 인식』 『日本研究』15)와, 근대 일본에서 추구한 여성상에 주목한 연구(우정미(2012) 『근대 여성지식인이 추구한 여성상』 『일본문화연구』 41)가 있다.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는 中尾香의 연구가 대표적이다(中尾香(2009) 『戦後『婦人公論』のエスノグラフィー <進歩の主婦>を生きる』 作品社).

4) 中尾香(2009) 앞의 책 p.34.

5) GHQ는 『중앙공론』과 『개조』의 재건에 호의적이어서 그 재흥을 위해 [이를 망가뜨렸던] 일본 정부가 힘을 써야 할 것이라는 의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올 정도였다(中央公論社

정치적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점령기 GHQ의 지도하에 시행되었던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다음으로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선언한 점령기 여성정책에 대한 일본 남녀 지식인들의 인식과 반응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는 당시 일본인들이 여성해방의 첫걸음으로 인식했던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 관하여, 주로 ‘미국’ 혹은 ‘미국 여성의 생활’에 대한 표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 점령기 ‘여성해방’의 실현과 우려

1) GHQ의 여성해방정책

패전 후의 일본은 이른바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이라는 두 가지 제도로 상징되는 새로운 공간이었다. 비록 패전의 결과로서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된 것이기는 했지만, 일본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징천황제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거부하지 않았다. 맥아더가 이끄는 GHQ에 의한 점령정치는 단지 전전의 체제를 극복하거나 패전을 수습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전후 일본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형성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다. GHQ가 물러나면서 권력이 일본인에게 이양된 후에도 점령기에 형성된 정치와 지식의 시스템은 수십 년 이상 지속되면서, 때로는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으로서 때로는 비판과 극복의 대상으로서 일본인의 정치와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지하듯 1945년 10월 11일 맥아더는 선거권 부여에 의한 여성해방, 노동조합의 육성, 학교교육의 민주화, 비밀심문제도 철폐, 경제기구민주화라는 전후 5대개혁의 지령을 발표했다. 여성해방에 대한 GHQ의 강한 의지에 압도된 일본 의회는, 1945년 12월 17일 그토록 오랫동안 거절했던 여성참정권 부여에 합의했다. 그 결과 여성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만 20세 이상은 선거권을, 25세 이상은 피선거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인

(1965) 『中央公論社の八十年』 中央公論社 p.306).

여성의 첫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1946년 4월 10일에 이루어진 전후 첫 총선거에서였으며,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맥아더 역시 만족을 표했다.

부인이 가정에서의 지위를 희생하지 않고 급속하게 사회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역사를 통해 그야말로 커다란 사건이다. 일찍이 법에 의해 개성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일에만 얽매어 있던 일본의 부인은, 이제 정치의 동향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남자와 평등하게 지고 있다. 이 정도로 고원(高遠)하고 극적인 변화는 달리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⁶⁾

참정권에 이어 양성평등을 향한 다양한 법적 준비가 1946-48년에 걸쳐 급속히 추진되었다.⁷⁾ 남녀평등을 규정한 일본국헌법 제2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민법에서는 ‘이에’(家)제도가 폐지되었다. 아내들은 더 이상 ‘무능력자’ 취급을 받지 않게 되었고 독립된 인격자로서 자신의 재산 처분도 가능해졌으며, 정조의 의무에 관해서도 부부평등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민법개정에 이어 그동안 아내에게만 간통죄를 적용하던 형법도 폐지됨으로써, 여성들은 ‘민법전논쟁’(1890) 이후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성차별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⁸⁾

이에 더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균등’과 ‘남녀공학’을 내건 <교육 기본법>,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여자 및 연소자’의 보호조항을 담은 <노동기준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노동성의 <부인소년국> 설치는 이러한 법률적 준비의 결과이자 이를 더욱 보완·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장책으로서의 위상을 가졌다. 여성해방이라는 기초 위에 일사천리로 추진된 여러 정책들은 여성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는 것이 당연했다.⁹⁾

일본 여성들도 이러한 변화에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 점령정치 하에서 여성

6) 『マッカーサー回想録』(加納実紀代(2005) 『戦後史とジェンダー』 インパクト出版社 p.77에서 재인용).

7) 鹿野政直(2004) 『現代日本女性史』 有斐閣 p.8.

8) 田中寿美子(1975) 『女性解放の思想と行動—戦後編—』 時事通信社 pp.21-22.

9) 당시 개혁정책에 관한 여성들의 긍정적인 반응의 내용에 관해서는 『戦後改革と女性アンケート六四四人の声から』(加納実紀代(2005) 『戦後史とジェンダー』 インパクト出版社)를 참조할 것.

의 지위향상을 예견한 여성계 리더들은 1945년 8월 25일 재빨리 <전후대책부 인위위원회>를 조직하고, 여성참정권 부여 및 기타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5항목을 일본 정부와 GHQ에 제출했다. GHQ 역시 일본 여성 지도자들을 환대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

2) 여성의 참정권 획득과 선거의 결과

점령기에 발행된 『婦人公論』의 지면을 넘겨보노라면,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녀평등, [여성에게 있어서의] 패전과 평화, ‘미망인’, 미국과 미국여성 등의 이슈들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 가운데서도 여성 참정권 수여로 상징되는 이른바 ‘여성해방’은 가장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이 바로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던 대표적 사건은 1946년 4월 실시된 총선거였다. 패전과 점령정치라는 전대미문의 충격 후 7개월 여 만에 치러진 전후 최초의 선거였다.

여성참정권 부여라는 여성해방의 상징적 사건을 목전에 두고 여성계가 보인 반응 가운데, 쉽게 넘기기 어려운 구절이 있다. 바로 참정권 뿐 아니라 여성해방을 위해 오랫동안 힘을 기울여 왔던 아마카와 기쿠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다.

부인참정권은 결코 우연히 주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들이 멀리 이역에서 흘린 피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들이 흘린 피에 의해 독재군벌은 절로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그 결과로서의 일본 민주주의와 그 일익(一翼)으로서의 참정권이다.¹⁰⁾

기쿠에는 일본 여성의 참정권 획득이 미국과 GHQ의 덕택이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의 남성들이 흘린 희생의 대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남성, 특히 ‘이역에서’ 피흘린 일본 남성들이 독재 군벌에 대하여 싸운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독재 군벌에 자발적으로 동조했던 것인지 그들 역시 희생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그들이 민주주의와 여성참정권 실현을 위해 싸웠던 것이 아니었음은 확실하다. 그들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부

10) 山川菊栄『解放の黎明に立ちて』『婦人公論』1946년 4월호.

터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저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전부터 활동한 대표적 여성운동가이자 미군정하에 설치된 <청소년부인국>의 초대국장에 임명된 기쿠에가, 여성참정권 획득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일본 남성들의 희생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 남성들을 굴복시키고서야 여성참정권이 주어졌다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당시 일본 여성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성의 참정권 획득이 결정되어 막상 첫 선거를 앞두고 되자, 줄곧 이를 주장해 왔던 여성 운동가들조차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여성들에게 정치교육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¹¹⁾ 사실 이러한 염려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기쿠에의 말대로 일본의 남성들에게도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권 행사’는 사실상 처음이었다.¹²⁾ 그 때문에 첫 민주 선거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다.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낮은 것은 당연하며 그 결과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진보적 결과가 나오는 것이 기적이라며 쉽지 않은 현실을 환기시켰다. 투표의 결과는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역사적 선거에 대한 다른 종류의 기대도 드러냈다.¹³⁾

막상 투표가 끝나고 보니, 결과는 운동을 주도했었던 이들에게도 놀라운 것이었다. 여성 유권자 2,150만 중 67%가 투표에 참여한 것은 남성의 78%에 비해 특별하다고 할 수 없었다.¹⁴⁾ 그러나 여성 입후보자 83인 중 45%를 넘는, 자그마치 39명이 당선된 것은 남성에게뿐 아니라 여성 자신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여성 자신들도 무조건 기뻐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야모토 유리코¹⁵⁾는 여성 39인이 당선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11) 野上弥生子 『政治への開眼』 『婦人公論』 1946년 4월호.

12) 山川菊栄 『解放の黎明に立ちて』 『婦人公論』 1946년 4월호.

13) 같은 글.

14) 1947년 총선거에서는 여성 중의원 후보 81인 중 15인, 참의원 후보 16인 중 10인 당선(『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 第十卷 婦人問題年表』 p.238). 여성 공민권은 1946년 9월 실현, 1947년 4월 첫 통일지방선거가 실시.

15) 1899-1951. 소설가. 미국과 소련 체류의 경험이 있으며 1931년 일본공산당 입당. 미야모

유권자의 정치적 수준이 여전히 낮음을 반성해야 한다는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서양과 다른 일본의 선거 결과에 놀라움을 표했다. 1918년 처음 참정권이 인정된 영국에서 동년 17명이 입후보해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1923년에 8명, 1924년에 6명, 1931년에 15인의 의원을 배출한 것이나,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참정권 획득 후 40년이 지난 1930년에야 상원 1명, 하원 6명의 당선자를 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일본의 비정상적 결과에 우려를 내비쳤던 것이다.¹⁶⁾

원인은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여성 돌풍이 일어난 원인의 하나로, 일종의 중선거제인 제한연기제(制限連記制)라는 선거방식의 부적당함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었다. 3명을 선거하면서, 성향이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안에 여성 후보 하나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투표한 결과가 대량의 여성 당선자 배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유리코는 전후 생활경제의 어려움, 이대로는 살기 어렵다는 절박감을 가진 여성들이, ‘정치와 부역의 직결’ 혹은 ‘여성의 문제는 여성 손으로’와 같이 현실을 반영한 구호를 내건 여성후보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지한 것이라 추측했다. “즉 여자라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여성들의 기대는, 시기상조임에도 강행된 선거준비 중에 결코 신중하게 정당의 진의를 이해하는 데까지 고양되지 못했다.”¹⁷⁾ 그 결과 정당들은 ‘여성에게 득표를 빼앗겼다’라고 인식했고, 각 정당은 자당의 여성 의원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만 ‘선전을 위한 장식물’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탄식했다.¹⁸⁾

3)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실망과 우려

여성의원들의 국회 입성 후, 그에 대한 우려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복장이나 도시락, 교통수단과 같은 부수적인 이유로는 언론의

토 겐지(顯治)와 결혼했으며 전시중에도 겐지와 함께 비전향을 고수했다. 전후 민주주의문학의 창조를 주창했으며 일본공산당의 재건, 신일본문학회와 부인민주클럽 창립에 진력했다(井上康子 외(2002) 『岩波女性学事典』 岩波書店).

16) 宮本百合子 『一票の教訓』 『婦人公論』 1946년 6월호.

17) 같은 글.

18) 같은 글.

주목을 받았지만, 여성의원의 연설은 야유를 받았고 ‘여성의 참가에 의해 [의회와 정계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자부하던 여성의원들은 완전히 아연실색’할 정도였다.¹⁹⁾ 의회 분위기는 결코 여성들에게 호의적이지 못했고, 여성의원들은 여성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실로 스스로를 ‘여성의원’이라는 틀 안에 가두며 자기들만의 블록을 형성하려 한다는 우려를 샀다.

여성들의 갑작스러운 정치 참여에 대한 우려는 『婦人公論』의 필자로 나선 이른바 진보적인 남성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반 대중이나 보수적인 남성들에 비해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이나 여성문제에 대해 이해가 깊은 편이었으리라 추측되지만, 그들 역시 돌연한 여성해방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와 육군성 근무경력이 있는 법제사학자 후지타 쓰구오의 경우, 신헌법제정에 따른 여성해방의 의미를 긍정하면서도 이것이 “[일본] 부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획득의 노력의 성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일본의 여성해방에는 ‘취약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²⁰⁾

『中央公論』의 편집주간과 부사장을 지낸 바 있고 『婦人公論』에 여성들을 위한 정치 관련 코너를 게재하기도 했던 정치학자 로야마 마사미치는, 일본 여성의 선거권을 “달을 채우지 못한 분만”, “미숙한 채 떨어진 과실에 비유했다.²¹⁾ 만일 선거권이 여성 자신들의 손에 의해 획득된 것이었다면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크게 환기시켰을 것이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너무 간단히 주어져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여성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이는 정치적 관심이 높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권위와 전통에 충실한 일본 여성이 종순(從順)한 결과라는 것으로, 남편의 영향을 벗어난 자주적인 투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²²⁾

더 나아가 정치풍자 만화가 곤도 히데조의 야유는 뜻내기 여성정치인에 대한 당시의 여론이 어땠는지를 실감나게 전해준다. 자신이 가상의 여성

19) 加藤シヅエ「議會から」、『婦人公論』1946년 8·9월합번호.

20) 藤田嗣雄「婦人の新しい地位と将来」、『婦人公論』1947년 8월호. 괄호와 강조는 필자.

21) 蠟山政道「女性の政治的関心を阻むもの」、『婦人公論』1950년 2월호.

22) 같은 글.

정치인의 입장이 되어 내뱉는 1인칭 독백 형식을 취한 문장에서, 곤도는 스스로를 ‘정치적 견해, 역량’은 전혀 없는 ‘무위무능한 백치’라고 자인하면서, 가정에서 주부들이 학대받는 현상이 국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²³⁾ [어차피] 의회 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여성의원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원내를 어슬렁거림으로써 남성의원들의 뇌리에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자는 그의 제안은,²⁴⁾ 당시 여성의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존재감 없는 상태였는지를 냉소하는 것이었다.

돌연하게 주어진 여성참정권에 대해 불안과 염려는 보편적인 여론이었지만, 실망에 빠져 여성의 정치참여에 냉소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특히 당사자인 여성들은 더더욱 그러할 터였다.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내야했다. 여성의원들이 각자가 속한 정당 안에서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당내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정당 조직 내에 적극 개입하여 ‘여성들의 공약’을 ‘정당의 공약’으로 만들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 하나의 사례였다.²⁵⁾

남녀평등을 위한 외부적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자, 이제 여성들이 그에 부응해야 할 차례였다. 기쿠에는 <부인소년국> 초대국장 취임에 즈음하여 여성들의 반성과 자각을 촉구했다. 여성은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며 자기연민에 빠져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결여하고 있다고,²⁶⁾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르게 여성들의 현상에 대해 자기비판을 가했다. 나아가 경제적·정신적 독립심을 결여하고 의뢰하려는 경향이 강한 여성들이 변하지 않는 한, 부인소년국의 설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의 밖에서 여권의 강화를 위해 요구조건을 내놓던 시절과는 다른, 정책 담당자로서의 달라진 입장을 반영한 셈이었다. 참정권을 요구하던 여성에서, 이미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이라는 현실의 변화에 조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식의 이른바 ‘레이디퍼스트’의 의례가, ‘여성은 남자

23) 近藤日出造『われもし婦人代議士なりせば』、『婦人公論』1950년 11월호.

24) 같은 글.

25) 宮本百合子『一票の教訓』、『婦人公論』1946년 6월호.

26) 山川菊栄『女性の解放』、『婦人公論』1947년 11월호.

보다 약하다, 그러니까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여성을 열등시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도리어 평등을 넘어 여성을 버릇없게 만든다는 지적이었다. 21세기에도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점령기 일본에서 과도하게 달성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남녀평등이 법률화되자마자 이에 대한 과도한 경도를 경계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오랜 해외 거주 경험을 가진 여성의 입을 통해 '여성아동전용차'를 거부해야 한다²⁷⁾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토록 오랜 시간동안 남녀평등과 여권존중을 주장해 왔으면서도 막상 그 실현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자 지레 어색해하는 당시 일본 여성들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전후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보이는 여성들의 과도기적 반응에 다름 아니었다.

3.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미국

전후 여성해방과 관련하여 참정권만큼이나 어찌면 그 이상으로 여성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아마도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법률적인 남녀평등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생활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실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었다. 사실 21세기에도 풀리지 않는 가사와 직업의 병행이라는 문제는, 여성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점령기 일본에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부담은, 패전 후 일본인에게 거의 무조건적인 동경과 모방의 대상이었던 미국인의 생활과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의 눈에 일본 여성은 가사노동의 부담에 쫓겨 시간 여유가 없는 반면, 그와 대조적으로 미국 여성들에게는 독서나 파티, 사교와 오락의 시간이 많아보였다.²⁸⁾ 바로 그 차이가 미국 여성과 일본 여성의 지위의 차이,

27) 村松嘉津「女を甘やかすな」『婦人公論』1948년 2월호.

생활의 차이를 낳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였다. 즉 가사로부터의 해방 여부가 여성해방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가 당장의 관심이 되었고, 아마도 편리한 ‘가전제품’의 사용 여부가 답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동경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것이었지만 특히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더 강한 인상을 받았다. 1920년대 10여년 간의 미국 유학 경험을 가진 화가 데라다 다케오(寺田竹雄)는 ‘남편’들로 구성된 좌담회 중 여성해방과 가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여성의 해방은 뭐니뭐니해도 의식주로부터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합리화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든 다 될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도 책을 많이 읽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자기 방을 갖지 못한 것이 여성이 해방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의 하나라 생각한다.²⁹⁾

하지만 데라다의 단언과 달리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든 다 될 정도’의 세상이 실현되는 길은 지금도 여전히 요원하다. 이는 미국도 다르지 않으며, 50여 년 전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터였다. 최근에는 가전제품의 발달이 가사노동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자체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데라다는 미국 여성들이 가전제품의 도움으로 이미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여성이 자기 방을 갖는 것이 여성해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도 흥미롭다. 그는 ‘의식주’ 문제가 여성해방과 직결된다고, 무엇보다 손가락만으로 가사노동이 해결되면 독서시간이 증가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빙설(氷雪) 연구의 권위자인 물리학자 나카야 우키치로도 미국을 방문한 후 『婦人公論』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투고했다. 즉 미국 주부들이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얼마나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지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8) 『アメリカ娘座談会』 『婦人公論』 1950년 7월호.

29) 『座談会 妻の自由と幸福のために』 『婦人公論』 1948년 8월호. 강조는 필자.

가정부를 쓰지 않고 자신도 밖으로 일하러 나가기에 미국 주부의 생활은 매우 바쁘다. 대신 집안의 설비는 어디든 놀랄 만큼 완비되어 있다. 특히 부엌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전기냉장고와 세탁기가 없는 가정이라는 것은 절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오븐(天火)이나 조리대(料理台)도 물론 완비되어 있다.³⁰⁾

‘놀랄 만큼 완비되어’ 있는 설비의 소개에 이어, 냉장고의 보급에 따라 직업 여성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냉동음식이 매우 발달하는 등 식생활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점도 소개하면서, 냉장고를 사용하는 미국인의 일상을 다음과 같이 그려냈다.

직장에서 돌아와 저녁에는 자동차로 부근의 식료품점에 가서 45일분의 식량을 사 온다. 야채도 고기도 요즘은 냉동품이 급속히 많아져서, 캔의 시대는 그야말로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요리로 만든 따뜻한 음식은 일반적으로 저녁에만 먹는다. 아침으로는 커피와 빵에 식은 고기(冷肉), 기껏해야 계란을 부치는 정도다…… 저녁 식사만 자동조리기로 요리한 따뜻한 음식을 일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는다.³¹⁾

그가 말하는 ‘자동조리기’란 시계장치(時計仕掛)가 달린 오븐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간단히 조리한 요리한 음식을 오븐 안에 넣고 시간을 지정해 두면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기 때문에 주부가 ‘부엌에 있을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이는 ‘극히 보통의 샐러리맨 가정’에서도 대략 구비하고 있을 정도여서, 그렇지 않다면 ‘맛별이를 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시계장치보다 일본 여성이 더 부러워하리라 생각한 것은 미국 가정의 ‘부엌’이었다.

부엌은 어느 집도 아주 청결하고 또 능률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새하얀 자기의 개수대와 새카만 가스대(가스레인지)가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며 한 쪽에 정렬되어 있다. 가스대는 보통 4개 정도의 냄비를 올릴 수 있으며, 각각의 가스 꼭지가 앞쪽에

30) 中谷宇吉郎 『アメリカの婦人生活』 『婦人公論』 1950년 1월호. 강조는 필자.

31) 같은 글. 생략은 필자.

늘어서 있다. 필요한 꼭지를 돌리면 그에 이어진 곤로가 자동적으로 점화된다. 성냥도 필요가 없다 …… 매우 편리하다.³²⁾

그는 매우 청결한 부엌, 특히 개수대, 조리대, 가스대, 전기냉장고, 식기대가 일종의 장식이 되어 있으며, 부엌과 욕실은 물론이고 각 방에 있는 세면대에도 온수가 반드시 나온다고, 미국 가정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려냈다. 그리고서는 이처럼 편리한 생활시스템을 ‘매우 적극적인 생활’이라고 표현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정의 설비를 개선하여, 그것으로 생활의 능률을 높임으로써 생겨난 시간을 밖에서 일에 사용, 다시 돈을 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가계를 풍성하게 하고 동시에 국가 전체의 생산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³³⁾

이러한 적극적인 생활을 통해 미국의 여성은 가사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는 ‘부인생활’이 아니라 완전한 남녀동권이 이루어진 ‘미국인의 생활’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평가였다.³⁴⁾ 미국에서의 여성해방이란 바로 여성들의 가사노동 해방과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헌법학자로서 국무대신을 역임하기도 했던 가나모리 도쿠지로 역시 미국 방문 당시 미국인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단순한 가사해방을 넘어 가정의 식탁 분위기와 연결시켜 소개했다. 사실 그는 미국에 가기 전부터 미국은 ‘부인 존중의 나라’이니 주의하라는 조언을 들었던 참이었다. 이는 거짓이 아니었다. 막상 미국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에 대한 예우를 보노라니, ‘이런 식으로라면 가정에서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과연 양성평등의 최저 기준을 채울 수나 있을지 걱정’될 지경이었다. 남녀평등 수준을 넘어 여존남비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실제 미국인의 가정을 방문해보니 실상은 또 다른 것이었다.

32) 같은 글. 괄호와 생략은 필자.

33) 같은 글.

34) 같은 글.

가정을 방문해서 저녁을 대접받아 보니, 이럴 수가. 여존남비의 모습은 거의 없고 양자는 거의 보기 좋게 평등한 지위에서 유쾌하게 접대해 준다. 그렇다고 남존여비는 아니지만 또한 그 반대도 아니다. 가정마다의 모습은 가풍의 차이는 있지만 적당한 분업이다…… [일본과 달리 미국에서는] 대개 요리의 종류가 적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식탁 위에 차려두면 주부가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고, 주부가 담소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다소의 분업은 있지만 완전히 평등한 듯하다.³⁵⁾

실제로 목격한 미국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해방을 돕는 것은 가전제품만이 아니었다. 미국식의 접대문화 자체가 일본과는 달리 남녀평등을 구현하기에 적절한 것이었다. 즉 주부가 끊임없이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접대하느라 손님과의 대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일본과 달리, 요리의 종류가 적고 또 식사 중 자주 부엌을 드나들 필요가 없는 음식문화가, 실생활에서 여성의 해방을 한 걸음 가깝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관료 출신의 사회학자 아카사카 시즈야(赤坂静也)는 이러한 식생활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 일본 여성과 미국 여성의 차이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그는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합리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는다. 그는 이것이 ‘일본에서도 결코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문제로서 거의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을 그와 대조적인 위치에 둔다. 그는 미국에서 ‘산업혁명 문제가 오늘날 다시 중요시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로서, 미국인들에게는 ‘산업혁명의 효과를 인간 전체의 행복 증진까지 확대하려 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에서의 가사노동 문제를 짚어낸다.

미국의 취사나 세탁, 청소 등 가정용구 개선은 현재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여성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의식주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생활개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가장 선망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제공사 측에 생활개선의 의사가 없다면 언제까지도 생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생활개선이 미국에서처럼 일본에서 행해지지 않는 것은 빈곤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하나하나

35) 金森徳次郎『あめりか婦人の多様性格』『婦人公論』1950년 5월호. 괄호와 생략은 필자.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하지만, 일본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실행하려 하지 않는다. 빈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³⁶⁾

그에 따르면 여성을 위한 가사노동 경감에 있어 미국과 일본의 차이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가전제품과 같이 손에 잡히는 도구가 아니라, ‘생활개선의 의사(意思)’였다.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실행하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여성의 가사해방이라는 문제에 있어 일본이 안고 있는 약점이었다. 이러한 일본인의 성향만이 문제는 아니었고, 문제는 보다 제도적인 차이와 관련되어 있었다.

일하는 여성의 가정을 보육하기 위해 가족 각각의 책임과 협력관계를 정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를 원호하기 위한 제도나 공공시설, 사회사업이 미국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전체적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은 필요한 다방면에 걸쳐 구석구석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의해 문화가 지켜지고 문화의 진보가 보장되고 한편으로 비극(悲慘事)으로부터 인간을 구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미국의 문화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생활의 합리화는 생활을 긴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진보로서 계획되지 않으면 안 된다.³⁷⁾

이처럼 미국 가정의 가전제품에 대한 강한 관심의 한편에는, 결코 그것만으로 여성의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함께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유무에서 미국과 일본의 차이를 찾고 있었던 점은, 눈앞에 보이는 신기한 가전제품에 시선을 빼앗기는 일차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즉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설비에 그치지 않고 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아웃과 상부상조하거나 남편과 미리부터 시간조율을 하는 개별적 노력뿐 아니라, 탁아소와 같은 사회사업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도 소개되었다.³⁸⁾

그런데 점령기 『婦人公論』에 나타난 ‘미국’과 ‘미국여성’에 관한 기사들을

36) 赤坂静也 『働く女性と家庭の問題』 『婦人公論』 1950년 8월호. 팔호와 생략은 필자.

37) 같은 글. 생략은 필자.

38) 『アメリカ娘座談会』 『婦人公論』 1950년 7월호.

살펴보노면,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 특히 가전제품의 편리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가전제품을 주로 사용하게 될] 여성 당사자보다 남성들이 다수라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사실 이상과 같은 남성들의 미국 가정 찬미 혹은 동경은, 오히려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 여전히 피상적임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婦人公論』에 실린 일본 여성들의 기사에서는 미국 여성의 생활에 대한 과도한 미화나 이상화된 기술을 찾기 힘들다. 대부분의 기사는 주로 미국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이 많았고, 가사노동에 관한 기술을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일본에 비해 어느 정도 가사노동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쉽지 않은 현실에 착목하여, 가정과 직업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다소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 즉 일본에 비해 사회진출의 여건이 다소 호전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가정과 직업, 혹은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편리한 가전제품을 동경하고, 가사노동의 해방이 곧 여성해방으로 이어진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향은 점령정치가 끝난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18년 동안 두 자리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고도성장기(1956~1973), 일본 국민들이 가장 열광했던 가장 대표적인 상품 가운데 냉장고·세탁기·청소기·곤로 등 가전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4. ‘여성해방’을 둘러싼 인식의 교차

일본의 패전 후 모든 질서와 생활이 새롭게 구축되는 시기였던 점령기, 일본인들은 이전까지 스스로 옳다고 믿었던 사실과 가치관이 허물어졌다. 동시에 여성해방이 선언되었으며, 미국은 새로운 규범이자 동경의 대상으로

39) 谷野せつ 『アメリカ視察婦人団 アメリカの婦人たち』 『婦人公論』 1950년 8월호.

등장했다. 이 모든 것들은 일본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적응하는가가 문제로 남겨졌다.

『婦人公論』은 바로 그를 위한 무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여성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오랜 역사를 가졌고, GHQ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그 정책을 잘 이해하는 인물들이 주축이 되었다. 『婦人公論』은 바로 점령기 여성정책에 대한 일본 지식인들의 반응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매체가 되었고, 단순히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맹목적인 환영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지식과 논리를 곁들여가며 여성정책에 대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본고에서 이를 ‘여성참정권’과 ‘가사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제한하여, 『婦人公論』의 지면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준비과정 없이 주어진 여성참정권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우려와 그로 인한 곤혹으로, 왜곡과 과장을 통해 전해지는 미국 가사노동해방의 소식은 가사노동해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이어지기 쉬웠다. 그러나 결국은 이를 극복하면서 여성 자신들의 자각과 반성, 미국인의 가전제품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그 배후의 제도와 가치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해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参考文献>

- 우정미(2012) 「근대 여성지식인이 추구한 여성상」 『일본문화연구』41.
 이은경(2011) 「전후 일본 남성들의 여성해방 인식」 『日本研究』15.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 第十卷 婦人問題年表』 p.238.
 『婦人公論』(1946~1952년 발행분) 中央公論社.
 井上康子 외(2002) 『岩波女性学事典』 岩波書店.
 市川房枝(1974) 『市川房枝自伝』 新宿書房 p.79.
 加納実紀代(2005) 『戦後史とジェンダー』 インパクト出版社 p.77.
 鹿野政直(2004) 『現代日本女性史』 有斐閣 p.8.
 鈴木裕子(1995) 『女と〈戦後50年〉女性史を拓く』 未来社 p.79.
 帶刀貞代(1955) 「『婦人公論』の四〇年」 『中央公論社七十年史』 中央公論社 p.377, p.378.

- 田中寿美子(1975)『女性解放の思想と行動—戦後編—』時事通信社 pp.21-22..
中央公論社(1965)『中央公論社の八十年』中央公論社 p.306.
中尾香(2009)『戦後『婦人公論』のエスノグラフィー <進歩的主婦>を生きる』作品社
p.34, p.38, p.40.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7일

게재결정: 8월 01일

<Abstract>

**Japanese Intellectuals' Responses to 'Women's Liberation'
During the Period of U.S Military Administration:**

Focused on articles in *Fujinkoron*

This paper tries to address what responses Japanese male and female intellectuals showed facing the policy of 'women's liberation' unilaterally given by the GHQ during the period of U.S Military Administr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wo items, 'woman suffrage' and 'housework.' As a way for this purpose, I have reviewed reports and essays during the period of U.S Military Administration in *Fujinkoron* 'public discussion among wives,' a magazine that had actively discussed sincerely about women's liberation from before World War II.

As for women's suffrage given without preparation, people, regardless of gender, showed worries on women's engagement in politics, and also revealed somewhat sardonic responses to the first female politicians' disappointing behavior. Also, women's liberation tended to be identified with the 'liberation from housework' and the exaggeration and distortion of American household appliances could easily encourage excessive expectation of the liberation from housework and vague aspiration to America. However, we can see that women began to show their own realization and reflection on woman suffrage, and such problems got overcome as the vague aspiration to Americans' appliances was turned into interest in their background institutions and values.

women's liberation, woman suffrage, housework, Fujinkoron, America